

### ◇식도 위 문합술의 합병증

신화균, 홍윤주, 윤용한, 김도형, 이두연

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영동세브란스병원 호흡기센터 흉부외과

**배경 및 목적** : \_ 영동세브란스병원 흉부외과학교실에서는 1990년 7월부터 1998년 8월까지 위를 이용한 식도재건술을 시행받은 4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술후 합병증 및 조기수술성적을 분석해보고자 하였다.

**방법** : \_ 식도암[34], 양성식도종양[1], 식도협착[7] 및 식도파열[2]의 환자 44명에서 경부 혹은 흉부내 식도 위문합술을 시행하였으며 병력지를 통한 자료수집 및 외래방문, 전화문진을 통한 추적관찰을 시행하였다.

**결과** : \_ 평균 연령은 58.3세[21-73]였고 남녀성비는 36대 8로 남자가 많았다. 36명[82%]에서 흉부문합을 시행하였으며 그중 3명에서는 흉강경과 복부내시경만으로 수술을 진행하였고, 나머지 8명[18%]에서 경부문합을 시행하였는데 그중 4명에서 중격동경을 이용하여 식도절제술을 시행하였다. 술후 합병증은 문합부위협착[7], 성대마비[6], 폐렴[6], 창상감염[4], 문합부위누출[4], 부정맥[3], 유미흉[2], 흉수[2], 장폐색[2], 문합부위출혈[2]의 빈도로 나타났고 식도 피부루공, 기관 식도루공 및 횡격막하 농양이 각각 1례씩 나타났다. 식도암[34]의 수술후 1년내의 조기사망은 6예로써 17.6%의 사망률을 나타내었다.

**결론** : \_ 위를 이용한 식도재건술 후 문합부위 누출 및 폐렴이 수술사망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으며, 고령, 폐기능소실, 진행된 식도암의 병기등이 조기사망율이 높이는 위험요소로 작용하였다.

책임저자:이두연(연세대학교) 발표자:신화균(연세대학교)